

와인 전문가가 만든 잔으로 깊은 맛 느껴보세요



애플 첫 '마스터 오브 와인' 지니 조 리 '글라스 컬렉션' 국내 론칭

시그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은 총 5개로, 3종은 와인을 즐기기 적합한 온도에 따라 분류한 C 시리즈 (8C·15C·18C)이다. 2종은 다양한 상황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U 시리즈 (U1, U2)로 구성되어 있다.

지니 조리는 20년 넘게 와인과 함께 해온 전문가다. 2008년 영국 마스터 오브 와인 협회로부터 아시아인 최초로 마스터 오브 와인 자격증을 수여 받았다. 이 자격증은 일주일에 걸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진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200명 밖에 안 되는 와인 관련 최고의 자격증으로 불린다.

지니 조 리는 와인이 알맞은 모양과 사이즈를 갖춘 질 좋은 와인 잔을 만났을 때 더욱 우아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인 잔 개발을 시작했다. 지니 조 리 시그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은 이탈리아 무라노 출신의 페데리코 드 마요가 디자인하는 이탈리아 최고급 수제 글라스 브랜드 '자페라노'에서 만든다. 자페라노는 최상급 크리스털 글라스를 제작하는 곳이다. 베네치아 전통 유리 세공 기술을 적용해 사람이 직접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형태를 만든다. 이탈리아 와인 전시회 '비니탈리(Vinitaly)'의 공식 와인 잔으로 사용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니 조 리 시그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은 노블레스몰 쇼룸, 마릴린와인 365 교대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 중이다.

/서민우기자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의 '마스터 오브 와인' 자격을 취득한 와인 전문가 지니 조 리(사진)가 3년여에 걸쳐 직접 개발한 '지니 조 리 시그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을 국내에 론칭했다.

13일 노블레스에 따르면 지니 조 리